

멸종위기동물 생존 둘러싸고 '충돌'

나로파대학 vs 동물보호단체 캠퍼스 내 잔디 훼손 '골머리' 동물 이주위한 계획 허가 요청 반대캠페인·서명운동 열려

미국 콜로라도 볼더(Boulder)에서 야생동물 프레리도그(prairie dog)가 불교대학의 생명윤리를 가능하는 척도로 등장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

볼더에 위치한 불교계 나로파(Naropa)대학이 캠퍼스 곳곳을 훼손하고 있는 프레리도그에 대한 '필살의 제어(lethal control)' 계획을 세우고 볼더 시당국에 허가를 요청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필살생(殺生)이라는 부처님 대의를 거스르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프레리도그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지에서 야생하는 '땅다람쥐' 일종으로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돼 있다. 보통 1백여 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넓고 평평한 곳에 땅굴을 파고 사는데, 이 주거습성 때문에 나로파대학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캠퍼스에 잔디를 조성해 놓았는데 프레리도그가 파놓고, 보수하더라도 다시 훼손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한 나로파대학 리글러 차드(Rigler Charged) 대변인은 "프레리도그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캠퍼스 잔디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프레리도그를 다른 서식지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동물보호단체인 'WildLands Defense'의 디나 메이어(Deanna Meyer) 대변인은



볼더에 위치한 불교계 나로파(Naropa)대학이 시 당국에 캠퍼스 곳곳을 훼손하고 있는 프레리도그 계획 허가를 요청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BOULDER NEWS

美나로파대, '프레리도그' 막기 위한 필살책 강구 동물보호단체 "필살생 행위와 다름없어" 반발

"지난 4년간 대학 측은 캠퍼스 내 프레리도그 이주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무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시의회에 허가를 요청한 '필살의 제어' 계획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Boulder urban wildlife Conservation'의 발 메디슨(Val Matheson) 대변인은 "현재 나로파대학의 '필살의 제어' 계획은 볼더 시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우리는 시의회의 불허가 조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aily Caller'에 따르면 볼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를 위해 나로파대학 안팎에서 반대 시위를 전개

하고 있다. 또한 'Care2Petitions'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반대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17만여 명이 '나로파대학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했다. 볼더 지역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대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동참자의 뜻을 모아 볼더 시의회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Care2Petitions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반대서명 캠페인은 "엄마, 나로파대학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해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로를 깨우고 있는 어머니와 새끼 프레리도그의 사진을 게재해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발 메디슨 대변인은 "우리는 나로파대학 캠퍼스가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당연히 프레리도그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캠페인은 공생·공존이라는 불교적 가치가 볼더 지역에서 실현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나 메이어 대변인도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존재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다른 존재에게 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나로파대학 내 프레리도그의 생존을 결정해야 하고 또 그렇게 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oulder Daily Camera'는 "지난 4년간 10만 달러(약 1억 2천만 원) 대학 예산을 지출했지만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어 '필살의 제어' 계획을 세웠다"는 리글러 차드(Rigler Charged)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고, "불도 시의회가 나로파대학 요청과 동물보호단체 주장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로파대학은 티베트 수행자였던 초감 트롱파(Chogyam Trungpa) 스님에 의해 1974년 설립됐다. 달라이 라마가 서방에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 티베트 불교를 모태로 출발한 나로파대학에 앨런 긴스버그 등 저명한 학자들이 포진하며 미국 불교 성장을 주도했다. 현재에는 '불교에서 영감을', '학생 중심의 예술 대학',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 '지적 개발과 실천적 명상' 등을 추구하며 11개 학사, 15개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규대학으로 발돋움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환생 승려'가 살생무기 홍보를?

美 액션배우 스티븐 시걸, 親군사 행보에 '논살'

티벳 불교의 열렬한 신자로 알려진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의 친(親)정치·군사 행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스티븐 시걸은 살생 군사무기 홍보뿐만 아니라 폭력물에 출연하며 전 세계 불자들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9월 24일 "스티븐 시걸이 최근 러시아 대통령 푸틴(Putin) 및 그 주변인들과 함께 무술, 각종 격투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친분을 쌓아왔다"며 "스티븐이 공공연한 툽쿠(tulku, 티벳 불교에서 이미 깨달았으나 중생구제를 위해 인간세계에 환생한 승려를 일컫는 말)로 인정되어온 바, 이 사태에 대한 티벳 불교 지도층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독실한 불자라고 스스로 자부해 온 스티븐 시걸이 정치인들과 함께 격투기를 즐기며, 때로 군무기 전시관에도 모습을 드러낸 점을 꼬집은 것이다.

'The Guardian'에 따르면 스티븐은 9월 말경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 무기 전시관 관람 일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졌다. 최근 군사무기 홍보행사에 자리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huffingtonpost

해 'The Guardian'은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장시간동안 군무기 공장을 둘러보는 스티븐의 모습"이라며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러시아 군무기 회사 광고에 출연해왔다. 또한 러시아 무기 산업에서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군 행사마다 모습을 드러내왔다"고 비난했다.

이는 살생을 금해야 하는 불자가 정치적 친분을 위해 살생 군사무기를 홍보하고 나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The Guardian'은 "한 액션배우가 '툽쿠' 이자 동시에 러시아 무기 공장의 '얼굴'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며 "우리는 그의 이해타산적 행동에 대해 달라이라마의 해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익모 기자

절-교회 '이웃주민' 될 수 있을까

미얀마 파안, 사원 건축 문제로 교회와 갈등

미얀마 카렌(Karen) 주의 파안(Hpa-an)에서 종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Karen News'는 "교회와 나란히 불교사원이 건축되고 있어 자칫 종교 갈등으로 이어질까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파안의 메자잉(Mezaing) 지역에 들어선 침례교회 바로 옆에 불교 사원이 세워지고 있다. 유 투 자나(U Thu Zana) 스님이 침례교회와 상의 없이 지난 8월 15일부터 '미야잉 기 누(Myaing Gyi Ngu)' 사원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또 마이클(Saw Michael) 담임목사는 'Karen News'와 인터뷰서 "미얀마 정서에서 교회와 사원이 나란히 서 있다면 종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사원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 투 자나 스님이 응하지 않고 있어 주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례교회는 95년 전 1.52에이커(약 4,900㎡) 규모로 세워졌고, 2014년 지역 불교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안 토지정비사업'을 통해 행정부 지원을 받아 1.52에이커 전체를 교회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현재 카렌주 불교지도자들에게 파안의 상황을 올바르게



유 투 자나(U Thu Zana) 스님이 메자잉 지역 침례교회 바로 옆에 '미야잉 기 누(Myaing Gyi Ngu)' 사원을 짓고 있다.

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지도자의 공감을 얻는다면, 유 투 자나 스님과 대화 차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Karen News'에 따르면 주 정부 불교지도자들은 '종교 갈등은 안 된다'는 원칙만을 내세울 뿐 유 투 자나 스님 설득에는 나서지 않아 타협이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10월 초 마련될 공청회도 유 투 자나 스님이 거부한다면 개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Karen News'는 "현재 13.5피트 규모 탑이 거의 완성됐고 이어 본격적인 사원 건축이 시작된다"며 "불교 사원과 교회가 나란히 있는 미얀마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獨 드레스덴, 첫 불교공원묘원 들어서...

독일 베트남계 불교센터, 4년간 시당국 설득해 2천여 평방미터 대지에 '10톤 규모' 불상 조성

독일 드레스덴에 불교공원묘원이 들어섰다. 드레스덴서 활동 중인 베트남 불교센터가 베트남계 이주민들의 원력을 모아 추진했던 '불교공원묘원'이 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Germany News'는 9월 28일 "베트남계 불교공동체가 독일 이주 40년 만에 사상 첫 불교공원묘원을 드레스덴에 조성하고 개인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드레스덴 시당국은 유대교, 가톨릭, 복음주의 기독교 등 독일 주류 종교와 비교해 불교의 사회적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교공원묘원'을 불허해 왔다.

"불교공원묘원은 이미 조성됐어야 했다"고 전제한 베트남불교센터 딩 링거(Ding Linger) 대변인은 "베트남계 이주민이 드레스덴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40년 전"이라며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베트남계 이주민은 10만여 명까지 늘어났고 이중 불교도는 85%에 이른다"고 말했다.

'Germany News'에 따르면 베트남계 이주민은 1세대에서 2세대를 거치며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 '생사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독일 베트남계 불교공동체가 드레스덴에 독일 이주 40년 사상 첫 불교공원묘원을 개원했다.

이에 대해 "첫 각성은 동독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링거 대변인은 "이때부터 자신의 유산을 되돌아보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다. 특히 7천여 명 베트남계 이주민이 살고 있는 드레스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자연스럽게 '불교공원묘원' 개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불교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불교공원묘원은 대지 2천여 평방미터에 다양한 불교 상징물로 장식됐다. 이중 단연 돋보이는 상징물은 8개의 법륜을 배경으로 봉안된 10톤 규모 불상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불교 상징인 만(卍)자는 불교공원묘원의 장엄에 사용하지 않았다. 나치 상징과 혼동될 수 있다는 베트남 불교센터 측 판단이다.

한편 "드레스덴은 독일서 대규모 극우집회가 열리는 도시 중 한 곳"이라고 지적한 'Germany News'는 "불교공원묘원이 인종주의·극우주의가 팽배한 드레스덴에 관용의 미덕을 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는 인종과 사상의 벽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이 소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는행 1005-002-700714(화엄경강원)

기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건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